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위기 이후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에 대응할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3.18일(목)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을 보고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육성전략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등 5대 핵심전략, 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육성전략은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二分法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인해 정책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중견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의 추진 배경은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거대기업이 나타나지 못하는 우리 경제를 지적할 수 있다.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 정책을 통

추진전략	정책과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①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정책근거 마련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완화	②조세부담 완화: 최저한세율 인하, R&D세액공제 확대, 기업상속 지원 확대 등 ③금융부담 완화: 기업은행 금융거래 유지, 보증만기도래 부담 완화, 무역금융 부담 완화 ④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정책금융공사를 활용한 장기설비자금 등 지원
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⑤기술역량 강화: R&D지원 확대, 사업화 촉진, 특허분쟁 대응능력 제고 ⑥독일식 기술확산시스템 전면 도입 ⑦전문인력 지원 확대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⑧해외정보 네비게이션 프로그램, 패키지형 마케팅 지원서비스 신설
「World-Class 300」프로젝트 추진	⑨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Package 지원

【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년도(KIET자료, 공기업 제외) 】

창업년도	'60년 이전	'61~'70	'71~'80	'81~'90	'91년 이후
기업집단 수	27	6	1	2	4

해 고속 성장하였다. 그러나, 과거 개발연대(60~8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80년 이후 민영화 기업(2개)과 외국계 기업(3개)만 신규 진입('09년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기준)하였다.

반면, 기존 대규모 기업집단들은 양적·질적 팽창을 지속하였다.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수(개)는 ('02)728 → ('05)1,002 → ('08)1,069 → ('10.2)1,164이고, 30대 기업집단 총자산 대비 GDP 비율(%)은 ('86)56.5 → ('92)67.6 → ('00)72.6 → ('08)88.9이다.

세계적으로는 '80년대 이후 IT혁명 등에 의해 거대 기업이 계속 출현중이다. Amazon('95), Carso Global Telecom('96), Google('98), China Mobile('00) 등이다. 성장동력 창출능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군이 없는 것은 '경제의 성장과 활력' 측면에 근본적 문제인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세계 新산업질서 형성과정에서 韓·中·日 分業구조가 전면적 競爭구도로 급변 ...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를 들 수 있다.

그간 韓·中·日 3국은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조립·장치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은 약화되고 중국은 급격히 부상한 반면 한국은 정체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이런 현상이 일본에서 먼저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Sony의 경쟁력 약화, 엘피다(반도체) 구제금융, Toyota·Honda 등의 대량 리콜 사태이다.

향후 韓·中·日 경쟁구도 변화 속에서 조립·장치 중심인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조립·장치부문은 결국 중국으로 이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립·장치 디바이스 → 중급 부품 → 첨단 부품 → 정밀장비·소재·재료이다.

반면, 일본은 조립·장치부문 약화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부품·장비·소재 기반으로 상대적인 경쟁력 유지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돌파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육성이다. 동북아 競爭구도 대응 주역으로서 중견기업인 것이다.

【 한·중·일 3국의 주요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

구분	한 국				일 본				중 국			
	'95	'00	'05	'07	'95	'00	'05	'07	'95	'00	'05	'07
철강	3.8	5.4	5.2	4.5	12.5	12.3	10.7	8.7	3.7	3.5	6.9	11.9
가전	4.7	4.4	3.9	2.6	14.0	14.8	9.9	6.8	5.6	8.8	20.3	22.0
통신기기	3.0	4.5	10.3	9.1	14.7	7.0	5.2	7.3	2.5	4.4	17.3	25.4
조선	15.8	22.0	26.6	26.9	31.3	27.4	18.2	15.7	2.5	4.4	7.2	12.3
기계	1.5	1.8	2.4	2.4	15.8	13.8	11.3	10.1	0.9	1.9	4.6	8.0

【 기업체 규모별 업체 수 및 고용 비중('07년 기준 추정치) 】

(단위 : 개사, 명)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¹⁾	대기업 ²⁾
기업체 수(비중)	2,950,967(99.9%)	1,877(0.06%)	132(0.004%)
제조업	318,258(99.8%)	662(0.2%)	78(0.02%)
종업원 수(비중)	10,726,610(85.0%)	1,079,847(8.6%)	809,504(6.4%)
제조업	2,405,138(71.7%)	386,314(11.5%)	564,514(16.8%)

주) 1) 중견기업 : 非중소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또는 종업원수 1,000명 미만 기업
2) 대기업 : 매출액 1조원 (and) 종업원수 1,000명 이상 기업

고부가가치 부품·장비·소재를 공급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관건이고, 新성장동력 창출의 企業家정신을 가진 새로운 기업群이다.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대기업, R&D역량이 부족한 일반중소기업과 차별화된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상황에서 質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중견기업의 성장 현황을 보면, 중견 기업군이 취약하여 기업 분포가 극심한 점탑형 구조이다. 특히, 중견기업군의 비중이 美·日에 비해 크게 낮다. 사업체 기준 중견업체군 비중('05, 제조업 기준)은 사업체수에서 美 2.4% 日 1.0% 韓 0.2%, 고용에서 美 14.4% 日 15.3% 韓 8.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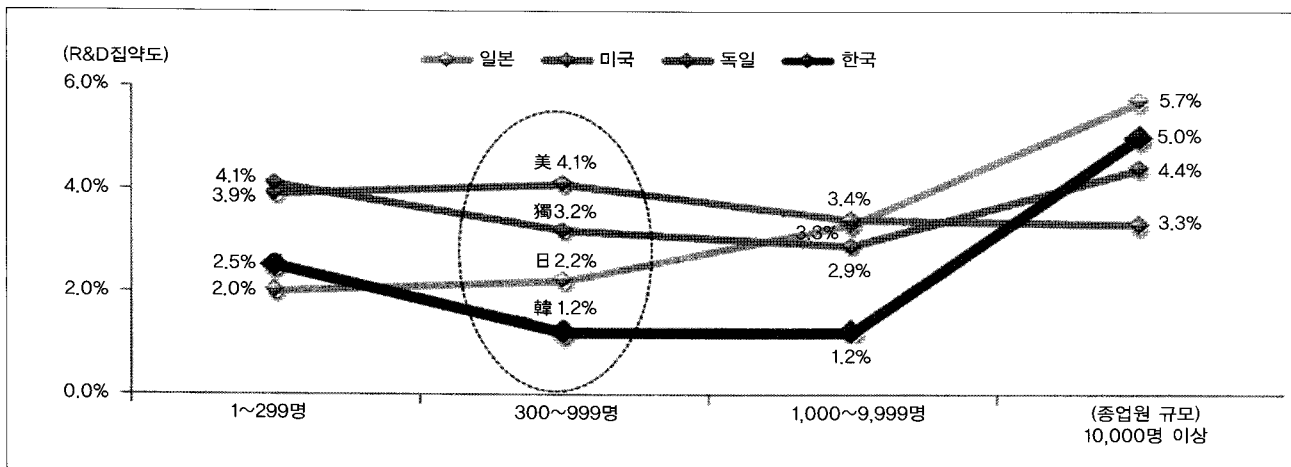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의 성장도 거의 정체

이다. 中小 → 中堅에서 '97년 당시 중소기업중 '07년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불과하다.

中小·中堅→大에서 '97년 당시 중소·중견기업중 '07년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사(中小 → 大 2개, 中堅 → 大 26개)이다. 이중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기업(21개사), 외국인기업(4개사)을 제외한 독립적 대기업은 3개사(풍산·오투기·이랜드)에 불과하다.

선진국 외에 중국 등 후발국 기업과 비교해도 성장이 부진하다. Fortune紙에서 발표('09.8)한 세계 100대 고속성장기업에 5개 중국기업이 포함된 반면, 한국기업은 全無하다. 100대 고속성장기업 현황은

【 기업규모별 R&D집약도 국제비교 】





(미국) 77 (중국) 5 (캐나다) 4 (스위스) 2 (대만) 1이다. (연 매출액 0.5억불, 시가총액 2.5억불,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대상).

중소기업의 성장정책요인으로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요인, 기업 경영의 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기업 내부의 혁신역량 요인에서 (R&D 역량) 우리 중견기업은 R&D집약도(R&D투자/매출액)가 중소기업보다 오히려 낮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소하다. 정부의 R&D 지원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편중된다. 산업기술 R&D 지원금 비중('08, %)은 (中小) 61, (中堅) 6, (大) 33이다.

우수인력에서 중견기업 성장에 필수적인 R&D, 경영혁신 등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하다. 중견기업 부족인력 설문조사('09, %)에서 기술(47.0), 영업(39.2), 기능(34.2), 경영(31.2)이다.

특히, R&D인력 중 박사급 이상 고급인력 비중이 中企보다 낮다. R&D인력 중 박사급 고급인력 비중(%,'05)은 (中小) 5.8, (中堅) 4.4이다.

생산성에서 그간 대기업은 IT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반면 중견기업은 소외된 상황 → 생산성 격차 확대되었다. ERP(전사적자원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MES(제조실행

시스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PLM(제품수명주기관리,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등이고, 중견기업 생산성(% , 대기업 1인당 부가가치=100)은 ('99) 67.2 → ('04) 61.1 → ('08) 57.7이다.

기업경영의 환경적 요인에 있어 특정 대기업 전속성이다. 거래관계가 특정 대기업에 한정된 기업일수록 성장률은 높지만, 여타 기업과 거래가 원활치 못함에 따라 일정 수준에서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다.

대기업 납품비중별 평균 매출증가율(%)은 (50% 이상) 35.2, (30~50%) 23.6, (30%미만) 10.1이다. '99~'07년간 제조업 기준 총 1,102개사 대상 조사 결과는 종업원 300~1,000명, 매출액 1천억~1조원이다.

규모 영세성이다. 범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과다, M&A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동차 생산 1만대당 자동차부품 업체수는 (韓, '07) 11.2, (日, '05) 8.9이다. GDP 대비 M&A시장 비중(%,'07)은 (世界) 7.6, (韓) 5.4, (美) 11.4, (英) 17.9, (日) 3.2이다.

내수의존성이다. 대기업 전속성으로 인한 경험 부족, 해외진출을 위한 최소 규모경제 수준 미달 및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요인이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졸업부담이다. 中企 졸업시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지원금감+규제급증”에 직면(160개 中企지원제도 적용제외)한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에 안주하는 것이다.

중견기업 정책에서도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부재이다. 프랑스는 獨逸 등에 비해 중견기업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중견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08.3월)한 이후 입법('08.7월)을 거쳐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

책 추진중('10.1월 발표)이다.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성장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중간규모 기업군(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을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 중견 →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촉진을 위한 핵심분야 중심 맞춤형 지원이다.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조세·금융 중심으로 완화하고, 중견기업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World-Class300프로젝트란 성장의지와 잠재력

을 갖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집중지원, '20년까지 300개의 World-Class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진출 의지가 강한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기관 합의를 통해 공동 선정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Single Gateway("World-Class 300 센터*") 구축한다. 기관간 협조체계 유지를 위해 운영인력 외에 지원기관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 신청접수-선정위원회 운영-지원수요 파악-사후관리 등 기업지원의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세부 추진과제		'10		'11	'12	관계 부처
		상	하			
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도입						지경부
중소기업 졸업촉진과 졸업기업 부담 완화	조세부담 완화					기재부, 지경부
	자금조달 부담완화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④ 성장지원 자금조달 프로그램 도입					기재부, 금융위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강화	⑤ 기술역량 강화					지경부, 특허청
	⑥ 독일식 기술혁신시스템 전면 도입					지경부
	⑦ 전문인력 지원 확대					지경부, 노동부, 중기청 등
⑧ 글로벌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지경부
⑨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추진						기재부, 지경부, 금융위, 중기청